판결·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거래대금에 채무 인수까지, 누가 얼마를 갚을지 밝히다.

4억여 원 지급 판결

결과 확인

미수 물품대금 ·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466,11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1. 1.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피고 피고 주식회사 연대하여 위 466,11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피고 2021. 1. 25.까지, 피고 주식회사 2021. 2. 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544,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피고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이런 상황에서 해율을 찾았습니다

거래처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과 채무인수인의 책임을 함께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업의 분쟁은 계약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급 일정과 남은 의무, 거래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다음 사업 계획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로 부담할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02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

계약이나 거래에서 누가 무엇을 약속했고 어디까지 이행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금전 지급뿐 아니라 추가 청구와 후속 절차에 관한 조건도 중요합니다.

이번 결과가 사업에 남기는 부담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결과는 4억여 원 지급 판결입니다. 지금의 분쟁에서 이 결과가 어떤 부담을 줄이거나 어떤 권리를 지켰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에 채무 인수까지,

해율은 채무를 인수한 상대의 지급 책임도 인정받았습니다.

- 연대책임과 인수 한도를 두고 다툼이 생겼다면
- 납품대금에 이자까지 누적되고 있다면
- 거래처 외의 책임 있는 상대방도 함께 청구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해율과 함께 얻은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4억 6,611만여 원 지급이 인정됐고, 채무인수인들에게는 인수 한도 안에서 연대 지급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04 당신의 상황과 나란히 보십시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분쟁의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되는 해율의 결과를 통해, 현재 다투는 문제를 어떤 책임과 절차로 나눠 대응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주한 문제가 같아 보여도 계약과 증거,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능한 주장은 무엇인지 해율과 함께 짚어보십시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해율은 채무를 인수한 상대의 지급 책임도 인정받았습니다.

- 계약 상대방이 지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 사업을 넘긴 뒤에도 대금 정산이 남았다면
- 계약 종료 뒤 추가 청구를 받을까 걱정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